

漢語와 韓語의 漢字語彙 對比(二)

— 漢字詞의 固有名詞 標記法을 中심으로 —

成光秀 中國 中央民族大, 高麗大 名譽教授

- I. 序
- II. 人名
- III. 地名
- IV. 其他
- V. 結

I. 序

이 論文은 한어(중국어, 漢語)나 한어(한국어, 韓語)의 학습을 위한 두 언어에 사용되는 漢字語를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어의 문자는 表意文字이고, 한국어(한글)는 表音文字이다. 그리고 같은 漢字語라 해도 중국어와 한국어는 現在 그 發音이 서로 다르다.

漢字語라고 해서 모든 문자나 단어가 中國으로부터 유래된 것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한자어 가운데는 日本式 한자어가 만들어져 있고, 또 韓國에서의 자생적인 한자어가 따로 있어 왔는데, 이는 각자 固有文化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造語인 동시에 漢字의 文字的 特性에 기인한 것이다

이 小論에서는 中國語의 漢字語彙 表記法 가운데 人名과 地名을 중심으로 한 固有名詞의 表記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表記法(=標記法) 이외의 것은 論外로 한다.

II. 人名

1. 만약 人名을 다르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中國인이 친근하게 잘 아는 ‘모택동’, ‘등소평’을 한국식 발음으로 부르게 되면 어떻게 들릴까?

各國(또는 各民族)의 고유문화에 걸맞는 인명이라도 다른 나라(또는 다른 민족) 사람에게는 의미 없이(단순한 指示語, somebody) 들릴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모택동(毛澤東; Mao2, ze2-dong1), 등소평(鄧小平; Deng4=邓, xiao3-ping3)과 같이 언급될 때에만 비로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人名이나 地名 등의 固有名詞에 대해 살펴볼 경우, 文字의 特性에 기인할 염려가 있을 수 있다.¹

2. 비근한 예로 한국어 이름으로의 ‘성광수’를 찾아보면, 成(cheng2//ナリ), 光(guang1//ミツ), 秀(xiu4//ヒテ)²와 같이 각자의 한자를 中國語 또는 日本語로 바꿀 수는 있으나, 이는 결코 韓國式 이름은 아니다. ‘성래연’을 표기한 成(cheng2//ナリ) 來(lai2//ライ) 顯(xian3, =显//クン)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식 이름이란 한국 고유문화에 맞아야 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사람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新世代의 作名法은 稀少價値가 있고 부르기 좋은 것을 選好하는 듯하나(정 주리, 김 한빛, 한 소리, 고 초롱이 등), 그래도 대부분 한국 이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뜻’(意味)보다는 ‘소리’(發音)상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듯하다. 대개의 경우 子女의 外國留學을 前提/考慮

1 ‘소리글자’(表音文字)와 ‘뜻글자’(表意文字)를 병기하되, 소리글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려 함이 목적이다.

2 숫자는 聲調를 나타냄(1: 平聲, 2: 上聲, 3: 去聲, 4: 入聲, //5: 經聲).

하여 作名하거나, ‘世界性’을 維持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듯하다.

3. 世界的인 人物(歷史上)에 대한 中國名은 그 發音만으론 千差萬別로 들릴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비슷한 발음에서부터 상이한 발음에까지 매우 多樣하게 들린다고 하겠다.

만약, 일본의 16세기 한국에 대한 침략사 壬辰倭亂을 아는 한국 사람끼리 ‘이순신’ 장군과 왜국 ‘풍신수길’을 말하면 그들 두 사람을 다 누구인줄 잘 알지만, 이(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外國人 특히 日本 사람에게 말할 경우엔 그들 두 사람을 각각 ‘이 순신’장군(前者)과 ‘도요또미 히데요시’(後者)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豊臣秀吉(도요또미 히데요시, トヨトミ ヒテヨシ)라고 반드시 말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주는 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의 예를 다음에 제시해 보도록 한다.

나폴레옹 I세(Napoléon I), 拿破仑 一世(=拿na2破po4仑lun2 一yi1世shi4;)

cf. 나폴레옹 III세(Napoléon III), 拿破仑 第三(=拿na2破po4仑lun2 第di4三san1)

찰스 I세(Charles I), 查理 第一(=查Cha2理li3 第di4一yi1)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阿基米德<=阿A1基ji1米mi3德de2>)=阿基米得
<=A1ji1mi3de2>

에디슨(Edison, T.), 爱迪生(=爱Ai1迪di2生sheng1)=爱迪孙<=Ai1di2sun1>

바하(Bach, J.S.), 巴赫<=巴Ba1赫he4>=巴哈(Ba1ha1)

卡尔文(Ka1'er3wen2;), Calvin, Jean(1509-1564): 종교 개혁가

卡夫卡(Ka3fu1ka3), Kafka, Franz(1883-1924): 카프카(‘까마귀’: 체코어)오스트리아 작가

喀/ 卡莱尔(Ka1 / 3lai2'er3), Carlyle, Thomas(1791-1881): 영국 사상가, 역사가, 문필가

바울(Paul), 保罗(=保Bao3罗luo2), 베드로(Peter), 彼得(=彼Bi3得de2)

알라(Alla), 呵拉(=呵A1拉la1),
 채플린(Chaplin, C.S.), 卓別林(=卓Zhuo2別bie2林lin2)
 피카소(Picasso, P.), 毕加索(=毕Bi4卡ka3索suo3)
 번즈(Burns, R.), 伯恩斯(=伯Bo2恩en1斯si1)
 다빈치(da Vinci, L.), 达芬奇(=达Da2芬fen1奇qi2)
 고흐(Gogh, V. van), 梵谷(=梵Fan4 谷gu3)
 한니발(Hannibal), 汉尼拔(=汉Han4 尼ni2 拔ba2)
 루소(Rousseau), 卢骚(=卢lu2骚sao1)
 모차르트(Mozart), 莫差特(=莫Mo4差cha1特te4)
 뒤마(Dumas), 仲马(=仲zhong4 马ma3)
 마리아((Maria), 马利亚(=马ma3利li4亚ya4)
 에로스/사랑신(Eros), 厄洛斯(=厄E4落luo4斯si1)

III. 地名

1. 지명 가운데 두 가지로 발음되는 예가 가끔 있다. 이를테면, 이태리(로마)식이나 영어식이나에 따라 베네치아나 베니스나, 피렌체나 플로렌스나로 발음할 수가 있다. 또 독어나 영어에 따라 Deutschland나 Germany나, Praha(prá:ɦa:)나 Prague(pra:g)나, Wien(vi:n)이나 Vienna(vi:ənə)나, Berlin(bərlin)이나 Berlín(berlín)이나, Pari(ppari)나 Pari(pá:ris)나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서울(Seoul)을 지칭할 때도 韓城(韩城)이나 首尔나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다소 있다 하더라도 最小化(다른 의미나 도시로 전의되거나 지시될 염려는 거의 없음)할 수 있고, 또한 발음도 서로 비슷하므로 혼용될 큰 염려는 없다고 본다.

2.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너무나 뜻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 다음의 예에서처럼, 한자를 모르고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다 하겠다.

中國(Zhong1guo2): 중국(China),

北京(Bei3-jing1)0)

상해, 上海<=上Shang-4海hai3>

남경, 南京<=南Nan2-京jing1>

다음은 世界 各國名과 首都를 비롯한 都市名을 간단히 제시해 본 것이다.

미국(Meiguo, 美國<=美mei3国guo2>)=The U.S.A.,

워싱턴(Washington, 华盛顿<=华hua2盛sheng4頓dun4>)

영국(英國, The United Kingdom =英ying1国guo2)=Britain

이디오피아(Ethiopia, 衣索匹亞<=衣Yi1索suo3匹pi1亞ya4>)=埃塞俄比亚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阿迪斯 阿贝巴<=阿A1迪di2斯si1 阿a1贝bei4巴ba1>))

프랑스(France, 法国<=法fa3国guo2>), 파리(Paris, 巴黎<=巴Ba1黎li2>)

독일(Deutschland/Germany, 德国<=德de2국guo2>)

베르린(Berlin, 柏林<=伯Bo2林lin2>)

이탈리아(Italy, 意大利<=意yi4大da4利li4>), 로마(Roma<=罗luo2马ma3>)

일본(Japan, 日本<=日 本>), 동경(Tokyo, 东京<=东dong1京jing1>)

에든버러(Edinburgh, 爱丁堡<=爱Ai4丁ding1堡bao3>)

옥스퍼드(Oxford, 奥克斯福<=奥Ao4克ke4斯si1福fu2>)

뉴욕(New York, 纽育<=纽Niu3育yu4>)

바그다드(Baghdad, 报达<=报Bao4达da2>)

호놀룰루(Honolulu, 火奴鲁鲁<=火huo3奴nu2鲁lu3鲁lu3 >)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约翰尼斯堡<=约yue1翰han4尼ni2斯si1堡bao3>)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倍诺斯爱勒<=倍Bei4诺nuo4斯si1ai4勒le4>)

=〈不Bu4宜yi2诺nuo4斯si1艾ai4利li4斯si1〉=〈布宜yi2诺nuo4斯si1艾ai4利li4斯si1〉

3. 江이나 山(脈) 등에 대해서도 그 名稱을 살펴보면, 가끔 興味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理由는 아주 크고 위험한 山이나 江엔 대개 그곳 原住民으로부터 傳來되어 온 어떤 傳說的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뜻글자(表意文字)로 命名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로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에서도 그런 성격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주)((Cont.) Africa, 阿非利加(洲)〈=阿A1非fei1利li4加jia1 (洲zhou3)〉)

유럽 (주)((Cont.) Europe, 欧洲〈=欧 洲 = Ou1 zhou1〉)

에베레스트(산)((Mount) Everest, 额菲尔士 山〈=额E2非fei1尔er3士shi4 (shan1)〉)

안데스(산맥)(Andes, 安地斯 山脉〈=安An1地di4斯shi1 (shan1mai4)〉)

아무르 강(Amur, 阿穆尔河〈=阿A1穆mu4尔'er3河he2)〉)

에게 해(Aegean Sea, 爱琴海〈=爱Ai4琴qin2海hai3)〉)

로키 산맥(Rocky, 落机 山脉〈=落Lao4机ji1 shan1mai4)〉)

올림포스(산)((M)Olympos, 奥林帕斯 山〈=奥Ao4林lin2帕pa4斯si1 shan1)〉)

오렌지(강)((R)Orange, 奥伦治(河)〈=奥Ao4伦lun2治zhi4(河he2)〉)

IV. 其他

1. ‘코카콜라’(Coca Cola), ‘펩시콜라’(Pepsi Cola)는 세계적인 청량음료

회사이나, 이를 ‘可口可樂’(=可ke3口kou3可ke3乐le4), ‘Pepsi Cola’(百事可樂=百bai1事shi4可ke3乐le4)라 하면, 본사에서 아주 만족해 할 정도의 作名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회사 자체에 대한 소개는 뭐하는 회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너무 清凉飲料의 맛을 부각시키는 意味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會社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소홀한 듯하다. 과연 ‘삼성’(三星, Sam Sung)의 IT와 ‘현대’(現代, Hyundai)의 自動車는 어떻게 命名되는 것이 좋을까?

세계적인 자동차의 경우만 해도 미국의 포드(Ford)나 지엠시(GMC), 영국의 롤스로이스(Rolls-Royce), 제규어(Jaguar), 독일의 벤츠(Benz), 베엠베(BMW), 아우디(Audi),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 노르웨이의 볼보(Volvo), 일본의 토요타(Toyota)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命名이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속된 表現으로 命名委員會에서의 審議決定이 있기 전에 買收될 念慮는 없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2. 商行爲에서 名稱은 그만큼 중요한 몫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도 그 이름 때문에 소위 출세하고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利潤을 추구하는 會社들이야.

대부분 회사는 設立 時에서부터 모든 作名을 마무리하거나, 도중에 명칭을 바꿔 가며 新裝開業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名稱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다.

이 名稱 問題에 있어 뜻글자인 漢字語는 그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作名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듯이, 말이다. 命名이든 作名이든 항상 내용과 취지는 합당해야 할 듯하다. 그렇다고 다 좋을 수도 없겠지만, 다 나쁠 필요도 없을 것이다.

V. 結

1. 簡体字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簡体字를 굳이 漢字 文化圈이라 해서 따라 써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다가 表記上의 문제로 漢字語彙가 나뉘지기라도 하는 날엔 돌이킬 수 없는 誤謬에 빠지게 된다. 거기다가 中國의 一方的인 簡体字가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말이다.

특히 뜻글자(表意文字)인 漢字의 固有名詞化는 危險 負擔이 크다. 아무리 形聲字나 假借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限界는 명확하기에 더욱 분명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固有名詞만은 소리글자(表音文字)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세계적인 人物이나 地名은 英語式, 佛語式, 그리고 獨語式으로 나뉘지나, 그래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共通性이 있지만 中國式에는 우선 發音부터 差異가 있게 마련이다. 人名과 地名 등에 의한 세계 만인의 공통된 固有名詞는 그 局部的인 個別性을 止揚하고 국가 민족을 초월하는 共通性을 指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구촌 萬人의 關心은 나날이 넓어짐에 따라 個別言語의 閉鎖性 대신에 世界語의 普遍性이 도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固有名詞에 대한 뜻글자의 命名을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固有名詞를 뜻글자(表意文字)로 표기하면 제 고유한 소리를 낼 수 없다.
정확한 제 소리가 아닌 비슷한 소리로 나타낼 경우엔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될 위험이 따른다(例: ‘阿基米德’〈아르키메데스〉, ‘倍诺斯爱勒’〈부에노스아이레스〉).
- ② 새로운 의미 해석이 가능한 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자마다 좋은 쪽의 의미와 나쁜 쪽의 의미로 양분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例: ‘可口可乐’〈Coca Cola〉- ‘克抠咳肋’/‘可扣苛了’ 등).

3. 뜻글자인 表意文字에 의한 固有名詞 表記는 아무래도 소리글자(表音文字)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로마자(汉语拼音) 사용이 許容되는 이상, 固有名詞만은 로마자로 表記할 수도 있고 한글 字母를 利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³ 發音의 正確性和 經濟性도모나 便利性에 관한 문제는 經驗論的인 問題로 추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뜻글자(表意文字)에 의한 表記法에 소리글자(表音文字)의 지원을 받으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利點이 可能하다고 말할 수 있다.

③ 固有名詞는 소리글자(表音文字)로 命名하되, 뜻글자(表意文字)적 解析은 附隨的으로 處理되어야 한다.

현재 人名, 地名 등의 漢字語 固有名詞는 表音性を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實事求是의으로도 반드시 소리글자로 明示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言語使用의 保守性を 考慮해서라도 過渡期적인 方案으로는 漢字語 固有名詞엔 括弧 속에 ‘로마자’로써 비교적 정확한 발음(汉语拼音 利用)을 나타내 주는 것이 適當하다고 본다.

끝으로 韓國에서도 이와는 正反對의 경우로 한글 專用論者와 國漢 混用論者들 間의 오랜 論難은 비교적 유명한 편인데 아직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3 로마자나 한글 자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엔 괄호 안에 발음을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마자는 26자이나 한글 자모는 24자이다.

그러나 固有名詞에 대해서는 소리 다음에 뜻을 加味하기 때문에 오히려 混亂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 본 논문은 2014. 8. 18. 투고되었으며, 2014. 8.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4. 8.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大辭典編纂室(1989), 『中韓大辭典』.
- 권호연/정영옥(1985), 『실용 한중중사전』(개정판), 서울: (주)진명출판사.
- 成光秀(2004), 「漢語와 韓語의 漢字語彙 對比—兩言語間の 效率的인 語彙教育을 위한—」,
『새국어교육』 제67호.
- 中国商务印书馆(2002)/(주)진명출판사(2002), 『精選中韓韓中辭典』.
- 陳泰夏(2012), 「形聲字 研究(1) - (5)—漢字를 表音文字처럼 읽는 方法—」,
『한글+漢字문화』(2012.8-12, 통권 제157-161호).
- _____(2013), 「形聲字 研究(6) - (10)—漢字를 表音文字처럼 읽는 方法—」,
『한글+漢字문화』(2013.1-5, 통권 제162-166호).

Comparison of Chinese -character Words used in Korean and Chinese (2nd)

—On the Orthography in writing Proper -nouns —

Sung Kwangsoo

This article is the introductive comparison of Chinese-character words used in Korean and Chinese, For the sake of series, (1) was already presented as lexical items and an efficient vocabulary-educ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by the simplified characters (-2,235-; 'Jian Hua Zi') at BFLU=Beijing Foreign Languages University(北京外大) 17, Oct. 2003.

At this time, I will present(2); the Orthography in writing Proper-nouns of the ideograms.

i) Proper-nouns can't represent their own phonetic value, if they mentioned ideographically.

‘阿基米德’〈아르키메데스〉, ‘倍诺斯爱勒’〈부에노스아이레스〉

ii) Because of new meaning-interpretations of the proper-noun, take care of it.

‘可口可乐’〈Coca Cola〉-‘克抠咳肋’/‘可扣苛了’

iii) Proper-nouns of the ideograms need the support of the phonogram.

(Pronunciation: Romanized letters; 拼音)

iv) Proper-nouns firstly have to be nominated by the phonogra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ideogram is done incidentally.

(Economically thinking; ‘实事求是的 思考’//Roman/English: -26-, Hangeul: -24-)

KEYWORDS proper-noun, ‘jian hua zi’(间化字/间体字), ‘Romanized letters’(‘pinyin’: 拼音), economically thinking(: ‘实事求是的思考’)